

연세의료원에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

- 공공·임상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의료 AI 연구개발 가속화 -
- 전국 9번째, 서울지역 2번째 거점으로 민감 의료데이터 안전 분석 환경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4일(목) 14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세의료원이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 연구자가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물리·기술·관리적 보안 대책을 갖춘 안전한 분석환경

보건복지부는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권역별로 안심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안심활용센터는 민감한 의료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안 분석 전용 공간으로, 연구자는 기관 자체 의료데이터뿐 아니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암 공공 빅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다.

- * 보건의료 분야 10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공익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시스템

- ** 암 질환 분야의 임상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K-CURE 플랫폼을 통해 암 등록정보, 진료·청구정보, 사망 등 전주기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방

- ※ (운영 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중앙센터, 서울),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 부산대학교병원(경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충남대학교병원(충남), 국립암센터(경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건양대병원(대전)

이번에 전국에서 9번째로 문을 여는 연세의료원 안심활용센터는 대규모

임상데이터와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도권 보건의료 연구 수요 충족과 의료데이터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임상·진료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심층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기관 협력연구,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및 신약 개발, 정밀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은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우수 공동연구단 (컨소시엄)으로 선정되는 등 의료데이터 활용 역량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왔다.

*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45개 의료기관(7개 컨소시엄)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에 개소하는 연세의료원 안심활용센터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의 표준 모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라며, “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연구성과들이 AI 기본의료를 앞당기고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윤재성 (044-202-2949)
담당 부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데이터활용지원사업단	책임자	단 장	정집민 (02-6263-8334)
		담당자	팀 장	조혜영 (02-6263-8347)